

제목: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39절

세상이 더욱 험해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으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 자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왕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 1) _____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25절)
- 2) 하나님의 영광의 _____을 보기 위함입니다. (32절)
- 3) _____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

지난 주 헌금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2장 25-39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2: 25-39 신약 90 페이지 Presider
-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김성민 목사
Message Why did they wait for Jesus? Rev. Kim
- 찬양 120(120)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다같이
Praise O Little Town of Bethlehem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온 맘 다해 다같이
Praise and Prayer With my whole heart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In-N-Out 햄버거)

지난주 우리교회가 예배하는 Portland에서 멀지 않은 Keizer 시에 In-N-Out 햄버거 집이 생겼다. In-N-Out 햄버거의 유명세는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터라 나름대로 반가웠다. 그런데 그날 우연찮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보기 위하여 햄버거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지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 햄버거가 유명했는가?” 생각하게 되었다. 오래전 LA에서 살던 시절 가까운 곳에 그 햄버거 가게는 여러 군데에 있었다. In-N-Out 햄버거 회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군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Drink 컵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넣을 정도로 열심 있는 주인이었다. 물론 맛도 좋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LA를 떠난 후로 개인적으로 그 햄버거가 제일 맛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늘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햄버거 가게가 지난 주 가까이에 생겼더니 잘된 일이고 얼마 후 내가 살고 있는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단골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날 그곳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렸는지 목격하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과연 성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In-N-Out 햄버거 가게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햄버거 가게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추운 날 그렇게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도 꾀본다. 하지만 우리가 있지 않는가? 아무리 기다리는 줄이 길지 않다고 하여도 내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이 얼마나 궁금해 할까? 하지만 내 스스로도 놀랍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으니 그 은혜를 세상이 못 보는 것은 아닌가?

그 햄버거 집의 광고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 것 자체가 뉴스 값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과 햄버거 집과 비교되었는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 뉴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5-26절)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성탄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햄버거 집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줄을 서야하지 않을까? 그 때에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줄이 더욱 길어져 천국까지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교회의 줄이 길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긴 줄이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다시는 세상에서 방황하지도 않고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천국의 입맛이 자리 잡아 죽을 인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는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 5)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 6) 하나씩 새롭게 진행 되는 교회의 사역들이 잘 정착되도록
- 7)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8)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서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헌금 봉투

헌금 봉투가 준비 되었습니다. 봉투 몇 개씩을 가지고 가서서 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헌금 내용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12월 행사

12월 22일(주)	오전 12시 30분	성탄 주일예배
12월 25일(수)	오전 10시	성탄절 예배
12월 31일(화)	오후 11시 20분	송구영신 예배 예정

7. 생명의 삶

12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수고 하신 선물로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5입니다.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